

성경에 나타나는 12족속들 (기쁨의 책 역대기서)

박 종 칠
(교수·구약학)

12족속은 성경의 첫 권에서 마지막 책에 이르기까지 항상 나타나는 성경의 한 중요한 동인이다. 만물의 기초며 기원을 말해주는 창세기에서 12족속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고 하면 요한계시록에서는 신천신지의 새 영원한 예루살렘 입구에 12족속의 역사의 마지막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러나 시작과 마지막 사이 중간에 처한 우리는 여러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교회로서 존재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세대에 “홀어져 있는 12족속에게” 야고보사도는 그의 서신을 쓰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신약교회, 그것도 시대의 거의 끝에 이른 듯한 형편에서 구약교회의 유산을 물려받은 우리들로서는 구약이 12족속들에 대해 쓴다고 하면 우리의 관심의 대상에서 구약을 외면할 수 없다. 이 역사는 세대마다 이어져온 바로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세대에서 볼 때에 우리의 것이기 때문이다. 12족속들에 대해 말하는 각 장 각 권마다 우리가 관련해서 생각을 하겠지만 특별히 한 책을 다루겠는데 거기에는 12족속들의 문제점을 쓴 가운데서도 거듭 거듭 기쁨의 각도에서 취급되고 있다. 비참에 놓여져서 어느 모로나 맞아 나누어지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종내는 포로로 잡혀간 형편에서, 고대 이스라엘 중에서 남은 자들이 별로 없는 형편에서 이 책이 쓰여지고 있는 것이다.

어려움에 처한 12족속

우리가 익히 아는 사실은 유대포로들의 일부가 고레스 칙령에 따라 성지로 돌아와서 거기서 성전이며, 성읍, 국민 재건운동을 함에 수고와 인내를 갖고 역사하였던 때가 바벨론 포로 귀환 후의 일이었다. 숫적으로나 자질면에서나 조직면에서, 구약교회의 규모에 비하여 많이 자랑할 만한 시기는 아니었다. 귀환자들, 말하자면 바벨론에서 자유된 자들의 수는 바벨론에서 거주한 모든 유대인들 중에서 소수에 불과한 적은 무리들이었다. 또한 이 적

은 무리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라 말라기 신지서들에서 볼 수 있듯이 그들의 어려움과 곤경이 얼마나 많았으며 컸던가는 우리가 알 수 있다.

외부 즉 이웃 이방인들로부터 오는 대적, 내부로 부터 오는 항거, 재건사역의 지연, 성전 봉헌을 함에 인색할 정도의 경제적 곤경, 특정 교회나 직분자들이 없으며 순수한 결혼 가정의 파괴, 이방인들과의 결혼 등, 요컨대 생각할 수 있는 어려움들은 이 시대의 성경을 읽으면 나타나는 슬픈 사연들이다.

이 시대 이후에 더 나아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오해하는 셈이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의 영광은 간 데 없고 다윗의 영광스런 왕국은 생각할 수도 없다. 재건된 새 성전은 솔로몬의 부귀영화에 비할 수 없고 유대나라 보좌에 왕이라고 할 자가 없고 대신 이방 통치자가 이 사람 저 사람 들어서고 있는 것이다. 마카비 시대의 영광스런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고대의 입장으로 돌아선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안디옥스 에피파네스 같은 잔인한 인간이 성전도시에 자리 잡는가 하면 종내에는 로마인들이 그 포위한 군대들에 집요하게 항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복하고 로마의 카이제 세계왕국을 만들었다. 게다가 모세에게로 순수하게 돌아가자고 하며 주를 경건하게 섬기자고 하는 개혁운동이 바리새주의 운동이며, 국수주의 열심당원, 사두개적 자유 정신이 잠식해 버리므로 남은 자로 귀환한 백성들의 복음운동이 전제를 당하는 형편이다.

그러나 세기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라고는 슬픈 현상이다. 그런 곤고한 시기 곧 포로시기와 베들레헬의 그리스도 탄생 중간 역사기간에 누가 감히 12족속들의 기쁨을 영광스럽게 말할 수 있겠는가? 이런 때에 누가 12족속이라고 하는 12라는 말인들 꺼낼 수 있겠는가? 오랜 옛날이나 할 말이지 12족속들의 왕국이 이미 르호보암시대 이후 나누어 졌으며 열 부족 에브라임 북쪽 왕국은 오래 전에 앗슈르로 잡혀갔고, 유다는 바벨론으로 간지 오래지 않은가? 앗슈르로 잡혀간 고대 이스라엘 족속들의 많은 수가 종적도 없어지고 지금에 와서는 10부족이라고 말도 할 수 없는 입장이 아니냐? 그런데 12족속들이나 전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할 수 있겠으며 이들을 두고 기쁨으로 말할 수 있겠는가?

차라리 하나님의 모진 심판 아래 납작하게 되어, 지금은 교회의 죄악때문에 영원히 잊혀진 듯한 영광에 파묻힌 것이라고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할 말이 있고 그런 비참하고 보잘 것 없는 교회에 남은, 적은 무리들이 위대한 역사의 일을 거론하며 전 세계를 말하며 12족속의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어려움에 처한 족속들을 위한 기쁨의 책

이러한 책이 역대기서다!

이 역대기서에 나오는 역사의 많은 부분이 사무엘과 열왕기서 책들과는 같으나 나름대로의 관점과 강조점을 갖고 있어 전혀 다르게 보고 있는 것이다.

모든 사실들에서 고대 영광들이 완전히 붕괴된 시대에 이 남아있는, 귀환한 구약 교회는 자신들의 찬란한 과거에 대한 위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 그러기에 이러한 영광스런 과거에서 영원한 영광스런 미래가 결정되고 있다. 물론 여기서 역대기서의 완전한 개요며, 바벨론 포로시대며, 그 이후의 시대상을 전부 살펴보려는 것은 아니고 우리의 관심의 대상은 역대기서를 쓰게한 성령님의 의도를 읽어 보는 것이다. 역대기서의 마지막 부분 역대기하 36:22~23과 에스라(느헤미야와 같은 한 권임)1:1~2간은 겉으로 보아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말하고 있다. 이로 보전대 성령님은 회락일로의 깊은 수렁에 빠진 교회, 여기에 포로귀환 후의 개혁 운동마저도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시대에 처한 교회에 이 역대기서를 두고 있는 의미를 음미해야겠다. 그 시대는 유대인 이스라엘인들이 계시 역사상 아주 흑암의 시기에 이른 것으로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며 그리스도 자신이 나타나기 전의 시기였다. 바로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 보이는 책을 열게 된 셈이다. 여기서 우리는 12족속들의 형편을 읽어 볼 수 있다.

12족속에 대해 말한다던 역대기서에 나오는 역사서술의 특수한 경향에서 볼 수 있다. 중간시대의 역사가 거의 멸절되다시피 하였는데 이 찢려진 백성이 완전한 백성, 전체 이스라엘의 기쁨 역사로 서술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역대기서 저자가 선호하는 말 "전 이스라엘"에서도 짐작이 간다.

폰 라드 같은 이의 말을 빌리면 이 말이 80여 번 나오는 가운데 42번이 역대기서에서 발견되는데 이 42회 중에서 단지 12번은 역대기와 사무엘, 열왕기서에서도 동일하게 나오는 말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단어나 말 보다는 이 역대기 저자는 이 "전체"라는 것을 상대화(극소)시키거나 그 백성을 분단시키는 듯한 역사상은 거의 모두 생략해 버리는 데 있다.

이것은 역대기 저자가 사실을 왜곡하거나 아니면 과장한 것이 아니냐? 할 때 그렇지 않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다윗 왕권 첫 7년 동안은 오직 유다만이 다윗에게 복종하였던지, 르호보암 시대 이후부터는 고대왕국이 분단되었다는 사실은 기정 사실로, 다 알려진 사실로 전제하기 때문에 그는 이런 것에 대해 더 말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역대기서 저자는 자신의 역사서술에서 사태의 슬픈 진전 중에서도 마 잘못된 결과들을 끌어낼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하겠다.

그 당시 귀환이후의 구약 “성도들”은 으레히 교회의 통일성이나 장래 메 시야 왕국의 영광같은 것은 찾아 볼 수 없겠느냐?고 쉽게 말할 수 있다(그 당시 팽배해 있던 폐배주의에 맞서 투쟁한 느헤미야의 투쟁을 생각해 보라). 그러나 과거 역사를 보아도 별로 이루어진 것은 없고 성공했다고 자부 할 만한 것도 별로 없는 터에 포로 귀환 후의 중간시대야 말해 무엇하라고 말할 수 있겠다.

사울의 통치사는 비참했고, 다윗은 7년간 쫓겨 다니면서 싸워야만 했다. 솔로몬은 그의 보좌가 아도니아에 맞아 간발의 위기에서 구조되었다.

이 두 왕—다윗 솔로몬—은 모두 아주 보통 평범한 왕으로 간주되지 그 이상은 아니다. 그런데 그 이후야 별로 말할 것도 없다. 초라한 왕국 타락 일색인, 그 역사서술에 신정의 교회 영광은 거의 찾아 볼 수 없다(마카비서 서술). 그러나 보기는 그런대로 되어간 역사같지만 실체는 전혀 그렇지 않다.

교회가 언제나 세상 바람에 휩쓸려 가는 형편이었다.

실제 이스라엘인들의 생활을 보면 일의 보람도 없고 부지런히 움직여도 얻는 소득은 없고 구멍 뚫린 전대에 넣는 격이다(학1:6). 참된 교회의 분리생활은 생각도 할 수 없고 세상과 결탁하여 이웃 이방백성들과 혼성결혼을 하는 것이다(학2:10f. 에스라 느헤미야 등은 혼성결혼에 반대하는 싸움이 있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양편이 즐겁게 할 정도의 재물을 찾는다(말라기). 그러나 위기시에 기쁨을 누리고 낙관주의를 개발시키는 일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것이다.

이런 불신풍조가 교회를 위협하고 발언하여 그 역사관점 역시 문제시되는 시대에 그 시대상을 하나님이 통치하는 관계에서 보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 하여 믿음은 이렇게 말하도록 가르치는, 즉 실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이 세상에 비해 부족하고 비교가 안 되어도 선전적 기쁨이 충만하고 순수한 영광이 넘친다고 하는 한 책을 우리는 갖고 있다.

통일성은 오래전에 없어졌고 왕국의 존재가 외부와 연계되고 왕들이 다 철폐된 역사라 할찌라도 하나의 왕국을 말하며, 참된 교회라고 말하며 법적인 선정국임을 말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다. 믿음은 가장 어두운 시대에서도 매순간마다 이스라엘 12족속들의 기쁨을 발견하고 확신하는 역사기술의 역대기서이다.

1. 역대기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신의 영광을 믿도록 가르친다

역대기 연구자들이 역대기서 말씀마다 부딪치는 것은 역대기서가 축제 기쁨에 대한 말을 거듭 거듭 언급하는 데 있다. 조그마한 사건, 실로 “조그마한” 제기가 가장 큰 의미의 어떤 것을 나타내고 있다.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 일에 삼하6장15절에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하는데 비해 역대상15장28절은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각기 나팔을 불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고 하고 있다.

다윗은 법궤, 성막을 미래의 성전 예배와 관련해서 취급함에 교회음악대를 조직하여 선택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의 신실성을 찬양하는 전체적인 움직임으로서 감격한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종종 역대기서 안에 유달리 폭 넓게 언급되고 있다(비교, 대상16:37~42:25; 대하5:12~7:6). 이러한 기쁨은 교회 통일 왕국 통일에서 전체 이스라엘의 값진 소유로 나타나고 있다. 모든 이스라엘지파들이 다윗을 전체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할 때(각 지파마다 따로 인정하는 것을 시사 한다). 그들 모두는 축제를 함에 북쪽 지파들에게도 가담시킨다(역대상 12:23~40).

이 기쁨이 언급되는 경우는 이 법궤를 옮기는 데 기나 긴 찬양이 따라나 오며(대상16:7~36), 다윗 처세시 솔로몬 대관식에 관계해서 전세계이스라엘인들이 주를 찬양하는 것이 언급되어 있는데 끝없는 재물을 가져오고 주의 면전에서 기쁨으로 먹고 마신다(대상29:21, 22). 역대기서에 성전 봉헌식에서의 솔로몬의 기도 이후 기쁜 축제가 분명하게 자랑스럽게 더 많이 서술되는데 이는 열왕기서에서 일어난 것보다 더하다(대하7:1~10; 왕상8:62~66을 비교하라).

후대에 와서는 여호사밧이 원수를 이기게 해주겠다고 하는 하나님 약속이 주어질 때에 하나님 찬양이 나온다(대하20:19). 히스기야 재위시에 유월절 축제가 북쪽 지파들도 와서 기쁨으로 개최되었는데 솔로몬 이후 그런 축제는 없었다고 한다(대하30~11, 25~27 비교. 요시아시 유월절, 대하35:15~18).

이것이 낙천주의냐?

엄연한 사실을 상징화하여 이상화하는 것 아니냐?

아니다. 이 역대기 저자는 추잡한 것도, 유다에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하는 것을 매우 강조해서 말한다. 부정적 면들도 역대기 기사는 다른 책들의 기사 내용을 더 상세히 보충하고 있다(르호보암의 치적에 대하여는 대하 12장과 왕상 14:21~31을 비교하라).

역대기서에서도 하나님의 죄정책과 징벌의 보상을 별도로 언급하는 것으로 분명히 나타난다. 그러나 역대기서 저자가 어떤 이상주의나 낙천주의를

갖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책들이 언급하는 근엄한 사실들을 더욱 명백히 증시하고 보도하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해서와 그들 자신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게 된다. 자신들에 대해서는 부족함과 비참함이 역사에서 명백히 증명되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의로움과 거룩하심, 자비가 한량없으심, 선택하는데 있어서의 진실하심과 자기 교회를 보호하심에 있어서 영화로움을 보여 준다.

그러니 백성들마저도 저들 자신의 영광을 믿고 인식하게 되도록 한다. 사물들의 절망적인 것 같음에도 메시아 뜻대로 진행해가는 하나의 신정적 왕국속에 있는 하나의 교회로서 선택과 은혜며 모든 축복을 누리며 자들 나름대로의 영광을 가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영은 바로 이 어두운 시대에 곧 세상의 눈앞에는 교회가 교회답지 않고 저들 스스로도 저들 과거, 현재, 미래가 거의 절망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암흑기에도 하나님은 바로 그 교회에 그들 자신의 교회역사에 관한 책을 주어 하나님 자신의 눈이 보듯이 이 역사를 보게하는 것이다.

이 역대기역사는 두 가지 큰 사실들이 이루어 지고 있다. 생존 세대의 자신들의 시대따라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 곧 이스라엘과 세계 교회 인류역사의 그 시작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노선에 뒤따라 우리는 우리의 시대를 점검해 볼 것이다.

2. 역대기서는 자신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쁨을 가르쳐 준다

역사의식이 자신의 세대와 시대를 규명해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경건에 따라야 한다. 우리는 이미 역대기서와 에스라-느헤미야서의 밀접한 관련성을 보았다.

이제부터는 포로귀환 후의 생활 모습을 보여 주는 데서 중요한 의미를 찾는다. 느헤미야8장에 보면 이스라엘인들과 에스라는 함께 모세의 율법을 읽게 되었는데 그 일이 7월 첫 날 말하자면 신년 첫 날에 일어났다. 그러니 축제날이다. 하지만 반대되는 사실도 나타난다. 잊어버리고 있었던 율법들이 그들에게 발견됨에 따라 속속들이 자기들이 실행하지 아니했음이 드러나고 “그들의 죄악과 비참이 얼마나 크며” 이 죄인들에게 심판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니 “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느8:9)고 하고 있다.

이 날은 행사인데 엄숙하고 회개하고 율법의 심판이며 율법에 서술되어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위협에서 깊은 겸허를 나타내야만 하는가? 그러기에 더욱이 에스라는 달리 생각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에스라와 레위인들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금식하지 말

자 신년 새날은 모세의 법에 따르면 거룩한 공의회와 기쁜 날이니 주를 기쁨으로 섬겨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레23:24; 민29:1). 그러나 읽은 율법의 말씀에 따르면 백성은 스스로 겸손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가르치는 말인가? 물론 이것은 그렇지 않다. 다음 장 느헤미야 9장에 따르면 7월 24일에는 회개의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인상깊은 회개는 다른 어느 곳에서도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회개도 때맞추어 일어나야 하며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다스려져야만 한다.

그러나 그 날 첫 날 순간이야 말로 저들이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그러므로 축제하는 백성을 주님이 보여주는 아주 순전한 겸손의 날이다. 그러므로 에스라는 그들에게 알게 하기는 이 위대한 축제는 정교하게 영광스럽게 규모있게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슬퍼하지 말고 주님안에 있는 그의 피난처안에서 기쁨을 가져야만 하는 것이다. 신년 새날에 그렇게 지켜야한다. 그러나 꿈이 아니다. 율법연구와 함께한 다음 날에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 따라오는데 정말 환희하는 기쁨의 절기요 감사의 절기다. 큰 축제였기에 여호수아로부터 그 날까지 이스라엘자손이 이같이 행함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즐거워했다고 한다(느8:17).

우리는 이 특이한 순간 곧 역사과정 중에서 수고로움과 역경, 반대, 죄악,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는 역사의 현장에서 자유된(귀환한) 교회의 죄악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아래서 낮아지기를 전후해서 적시에 회개를 해야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느9장을 보라-뿐만 아니라 적시에 축제를 행해야 하며 기쁨을 보여주어야만 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법질서에 따라서 이루어져야만 한다. 축제와 기쁨이 아니 회개와 겸손이 인간자신들의 의지나 어떤 순간적 감정에서 나올 수 없고 즐거운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 순종하는 가운데서 이루어 진다. 그 한 시대의 모든 비참이며 고대 12 족속들 중에서 초라하게 남은 모든 슬픔들이 이스라엘 12 족속 즉 전체백성의 즐거움을 멈추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자기백성 자기교회의 통일성 곧 una sancta를 본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그렇게 쪼푸러진 시대에서도 위대한 역사서술을 하도록 하여 포로 귀환 후의 하나님의 자신의 시대에 기쁨과 회개를 다같이 보도록 그들의 과거를 신정의 빛에서 새로이 배우도록 하는 것이다. 하나님 백성이 자신의 시대에서 배워야만 하는 것은 그들 전체역사에 기초되어 있는 즉 전체 이스라엘 12 족속의 기쁨의 역사에 근거해서 보아야 하는 것이다.

3. 역대기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신실함을 자랑할 것을 배우도록 한다

만사가 잘 되어 가는 것 같아도 곤경은 여전히 있다. 그 곳 예루살렘에

모인 작은 군대로 말미암아 넓은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기쁜 축제가 오려려 어린애 장난기같이 실없이 보이는 것 같다. 그것도 그럴 것이 다윗시대의 고대영광이 별로 남아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달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성경자체는 초라한 교회 역사라해도 그러나 그것은 옛날기록들이 말하며 법적 노선임을 자랑하는 역사로 보는 데서 이해의 어려움을 가져다 준다. 그 노선이 다윗, 모세, 야곱, 이삭, 아브라함에게로 거슬러 올라갈 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 세계사, 전 인류, 아담자신 시대의 역사에게로 돌아가고 있다.

역대기서는 이스라엘백성의 어느 순간이나 장소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으로 시작하고 있다. 우리가 흔히들 재빨리 읽지만 빠뜨리기 일수인 이 성경부분에서 본질적 의미를 갖고 있는 족보 기사의 분류와 열거들을 말하는 장들은 별것이 아닌 것이 아니다. 이 장들 즉 족보 이야기를 말하는 장들은 비록 온전한 것은 아니지만 역대기서의 역사 이야기와 불가분리의 관계에 속한다. 여기에 말되고 있는 모든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이 긴 족보 서론이야말로 나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신정다윗왕국의 역사 포로민들중에서 메시아적 남은 무리의 역사와 변천하는 세상중에서도 간신히 남은 회중의 역사가, 모든 족장들을 넘어 모든 역사의 시작에 꼭 매여 있어 여기서 이 세상의 하나님 창조와 하나님이 아담 창조와 더불어 이루기 시작한 계획과 관련되고 있는 것이다.

한 푼도 없는 후대의 교회는 아무리 생각해도 미천한 보좌라도 스스로 참된 법적 교회임을 스스로 노래하는 것을 배울 수 있겠다. 적은 믿음인데 기쁨과 위기를 당할 때에 복음은 이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세기를 통하여 자기 백성 전 이스라엘에 다윗과 그의 큰 아들의 깨뜨러지지 않는 왕국을 견지하면서 전역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의하여 기쁨으로 소명받았다는 확신이 있다.

그러나 역대기서는 시작을 아담, 아브라함, 다윗 등으로 시작하여 오늘의 나의 교회에까지 왔는데 여기는 죄로 얼룩지고 깊이 꼴이 파인 곳까지 왔다. 그러면서도 끝에는 포로생활에서의 자유에 대한 짧은 정보로서 끝맺는다. 그러나 이러한 기쁨의 연대기는 교회의 죄와 비참에 대한 깊은 부끄러움을 자각하고 있다. 그래서 참된 회개로 기쁨을 갱신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12 지파의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의 존귀를 하나님께 드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이스라엘 12 지파는 바로 신약교회요 역대기의 후렴인 것이다. 전이스라엘!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 12 대문을 가진 그 도시 입구에 새겨져 있기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열 두 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열 두 지파의 이름들이라”(계21:2). 그

성곽은 모든 시대를 망라하는 아담부터 새 예루살렘까지 바울의 승리의 외침처럼 “전 이스라엘”이 “구원받은”(롬11:26) 그 시대까지를 망라하는 강력한 연대기 사실들을 말하는 최후 증명이다. 여기는 고대 다윗왕국 신정과 솔로몬의 성전 통치들이 죄의 타락으로 문란하고 종내에는 포로로 잡혀가는 모든 폭풍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원한 완전한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계가 사람들 옆에 와서 그들가운데 거하고 그가 모든 눈물—바로 언제나 새로이 나타나는 교회 비참들에 대한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고 그 첫 것들은 지나갔기 때문이다(계21:3~4). 이 일은 12지파들의 이름이 그 때문에 기록되어 있고 그 벽은 어린양의 사도들의 열 두 이름들을 가진 12기초위에서 있는 그 곳에서 일어난다. 그 입구에서 영원한 신정왕국이 이루어 진다. 성전—말하자면 솔로몬의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던 장관이었던 그 성전은 이상 더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요 어린양이 성전이기 때문이다(계21:22). 그리고 땅의 열왕들이 그 안에 저들의 영화를 가져오고 백성들의 영광이 들어온다. 결코 닫혀 있지 않는 그 문에 12지파의 이름들이 있다.

4. 흠어져 있는 신자들을 위한 즐거움

그런데 이런 말들은 미래의 음악처럼 들릴지 모르나 어려움과 투쟁, 온갖 투쟁과 고난에서 오는 비틀거림을 당하는 우리들과 무순상관이냐고 반문할지 모른다. 우리가 살기는 살지만 여러 일거리들 가운데, 즐거움도 절망도 매 주 당하는 막벌이 일들 가운데 오는 어려움과, 그래도 생을 누리는 자들의 무력함이, 모든 시간은 아름답기도 하고 전망은 약속을 주는 듯 하지만 막상 오늘날에 처한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이스라엘 12지파의 기쁨의 영광이 현재 여기서의 삶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를 쫓는 너희도 열 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 두 지파를 심판하라”(마19:28). 이 말씀은 확실히 “장래에는” “한 번은” “당장에”라고 할 수 있는 의미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너희들이 오늘날 격려될 만한 저들의 “뿔”이 없느냐라고 베드로가 질문함에 예수님은 용기를 가지고 조심하라는 것이다. 이 말씀과 함께 예수님은 다음의 말씀을 첨가하신다.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가능성이 많으니라”(30절)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의 현재와 명백히 관련을 가지시는 말씀이다. 구주 예수의 종 우리의 형제된 야고보 사도의 입을 통해 우리의 연약한 힘을 북돋아 준다. 그는 짧은 그의 저서 힘있는 편지에서 이렇게 인사한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흠어져 있는 열 두 지파에게 문안하노라”(약1:1).

그리고는 “내 형제들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1:2)라고 말하고 있다.

그 다음 야고보 서신은 온갖 투쟁과 어려운 시련과 죄악들이 여기저기에 있는 신자들의 삶 속에서 새로운 언약관점을 쓰고 있다. 야고보 서신은 사실을 과장해서 그 시대의 형편보다 더 아름답게 그려놓았다고 말할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당대 신자들이 살아가는 형편을 보고 쓰고 있다. 이들이 유대인들에게서가 아닌 이방인들에게서 나온 무리들이, 그들의 흠어짐이 어떤 핍박때문이든 아니면 이런 저런 교회 백성의 형편에서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들이 언제나 악한 세상에 둘러 싸여 있다는 점이다. 투쟁가운데서의 어려운 교회 전도에서 난관 대소사 간의 죄악들이며 흠들, 예컨대 설교 비평자들, 땅의 가난한 자들, 험담하는 무리들, 무오하고 개화된 자들이 가난한 형제들을 멸시하는 것들이 많다. 또한 병상에서 앓는 자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투쟁하는 자들도 본다. 야고보 사도는 유식자이든 무식한 자이든 하나님의 교회를 구성하는 여기저기 실재해 있는 신자들을 보게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 연대로 묶어서 승리의 한 말을 하는 것이다. : 흠어져 있는 12지파에게 구원으로 인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야고보서의 “첫” 실제적인 말이 다음 장의 모든 형편을 잘 정의해 주고 지배하고 있다. 자는 자가 있는가 하면 누워있는 자, 죄짓는 자가 있는가 하면 내일에 자신하는 자들, 남자가 있는가하면 여자, 소년이 있는가 하면 소녀들, 이들이 하나님의 흠어져 있는 교회요 모든 세계의 모든 어려움이 자행되고 있는 교회백성들에게 야고보 사도는 이스라엘의 보편적 12지파의 이름으로 쓰고 있다.

그러므로 야고보의 의중에는 헤브론에서 다윗축제의 영광 성전봉헌식 히스기야의 유월절 어려운 난국시에 에스라의 신년축제며 환희가 약한 초막절을 염두에 두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깨뜨려지지 않은 새시대의 현재교회를, 모든 세대의 교회를 보게 된다. 역대기 기자는 바로 야고보서에서의 자기의 감사스런 제자 야고보를 발견한 셈이다. 오늘날의 현세에서 온갖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12지파의 순전한 신정국의 기쁨을 이야기해주는 자로서 같은 맥을 통한다.

지금 이러한 역사와 영광을 믿고 어려운 처지에도 야고보 사도의 이와같은 인사에 걸림이 되지 않는 자들은 다들 승리의 위로를 얻게 된다. 적그리스의 세계에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진 다음 큰 영광의 날이 올 때 사도 요한의 말을 듣게 된다.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십사만사천이니라”고 하고 있다. 그 수를 들으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지파마다 일만이천을 각 지파마다 개개 다 세어진다. 그 수가 지파마다 완성이니 완전히 인맞은 자들로서 안전하고 어떤 폭

풍노도가 와도 일곱인을 깨뜨릴 수 없고 위험도 저들을 부끄럽게 하지 못한다(계7:1~8).